

# 한국 국제개발협력에서 민간 부문의 역할에 대한 재접근

국제개발협력연구 제17권 2호 (2025)

김가형, 이은정, 황윤정, 김한나, 유성상

**목적:** 본 연구는 한국의 개발협력에서 민간 기업에 부여된 역할과 기업이 기대하는 역할을 조사한다. 부여된 역할과 원하는 역할 간의 차이를 규명함으로써, 민간 부문의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민간 부문 역할의 재정의를 제안하고자 한다.

**독창성:** 민간부문참여(Private Sector Engagement, PSE)는 국제개발협력, 특히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진전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민간 부문 참여를 통합하려는 노력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는 여전히 제한적이며, 이는 민간 기업의 역량과 동기를 반영하는 역할 재정립 및 참여 프레임워크 재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방법론:** 대기업과 중소기업(SMEs)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가 수행되었다. 민간 부문의 역할을 수혜자, 실행자, 개혁자, 자원 제공자, 참여자로 분류하고 공공 기관이 부여한 역할과 기업이 기대하는 역할을 비교하기 위해 역할 기반 분석 프레임워크가 사용되었다.

**결과:** 대기업은 자원 제공자에서 개혁자 및 참여자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며, 보다 전략적이고 성과 중심적인 협력을 추구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중소기업은 수혜자 및 실행자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지만, 제도적 제약과 제한된 인지도를 직면한다. 기업 역량을 개발 목표와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참여자 역할을 확대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결론 및 시사점:** 민간 부문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현재 정부와의 협력 구조는 이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민간 부문이 국제개발 협력의 핵심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역할 중심의 참여 전략과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주제어: 민간부문참여, 국제개발협력, 한국, 역할 기반 접근

## I. 서론

국제개발협력에서 민간 부문이 핵심 주체로 등장한 것은 1980년대 신자유주의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민간부문참여(Private Sector Engagement, PSE)라는 개념을 대중화 시켰으며, 이는 이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 개발 협력의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경제 성장, 기술 혁신, 일자리 창출을 이끄는 민간 부문의 역할은 점점 더 인정을 받고 있다(Rashed et al. 2021).

대한민국(이하, 한국)에서 이러한 글로벌 추세는 공적개발원조(ODA)를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적 개발 정책에 반영되어 있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2021년 전략 계획을 통해 민간 부문과의 파트너십을 최우선으로 삼았으며, 민간 부문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혁신기술협력사업(Creative Technology Solutions, CTS)과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Inclusive Business Solutions, IBS)<sup>1</sup>과 같은 이니셔티브를 시작했다 (KOICA, 2021). 이와 유사하게, 제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21-2025)과 제43차 국제개발 협력위원회는 민간 기업이 참여하는 ODA 프로그램 확대를 강조했다(ODA Korea 2021; ODA Korea 2022).

<1. CTS는 예비 창업가와 소셜 벤처의 혁신적인 아이디어 또는 기술 개발 및 현지 검증을 지원하여 원조 효과를 높이는 사업이다. IBS 프로그램은 개발도상국 저소득층이 직면한 사회 개발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에게 고용 및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우리 기업의 사업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공동의 목표를 가진 전략적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하는 비즈니스이다. CTS는 일반적으로 소셜 벤처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 IBS는 중견 기업이나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KOICA 2024).>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한국 ODA 프로그램에서 민간 부문의 참여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Choi et al. 2021). 한국의 민간 부문 참여는 29개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 중 낮은 순위를 차지한다(OECD 2016). 한국의 정부 주도 개발 협력 모델은 민간 기업, 학계, 시민 사회를 포함한 비정부 행위자들의 참여를 제한한다.(Watson 2013; Stallings et al. 2016).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본 연구는 한국 민간 기업의 목소리를 통해 개발협력에서의 PSE를 조사하며, 특히 그들의 역할에 초점을 맞췄다. 연구 질문은 “민간 부문에 요구되는 역할과 민간 부문이 원하는 역할은 무엇인가?”이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본 연구는 질적 접근 방식을 사용하여 PSE에 대한 기업의 실제 경험과 기대를 조사했다. 민간 기업 이해관계자들과 심층 인터뷰를 실시했으며, 관련 산업 협회로부터 서면 자료를 보완했다. 수집된 데이터는 Vaes et al.(2015)과 OECD(2016)가 언급한 역할 기반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주제별로 분석되었다. 민간 부문의 관점에서 기회와 한계를 다루면서, 본 연구는 한국에서 보다 효과적인 PSE를 육성하기 위한 실행 가능한 통찰력을 제공하고자 하며, 역할 전환에 대한 제안을 포함한다.

## II. 문헌 검토

### 1. 국제개발협력에서 민간 부문 참여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시작된 국제개발협력 원조 시스템의 진화는 상당한 변화를 겪었다. 20세기 후반과 21세기 초에 이르러, 이는 이상주의적인 인도적 지원에서 상호 이익을 강조하는 모델로 전환되었다(Choi et al. 2021). 이러한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SDGs 달성을 목표와 방법은 다양화되어 글로벌 과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민간 부문의 전문성을 활용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민간 기업은 이러한 시스템적 변화에 대응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원칙을 점점 더 수용하고 있다. CSR은 주주 이익을 넘어 경제적, 환경적, 윤리적 책임을 강조한다. 기업 관행에 대한 사회적 우려에 뿌리를 둔 CSR은 글로벌 시장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전략적 투자로서 자선 활동, 사회 운동, 윤리적 사업 운영을 장려한다(Porter et al. 2006). 민간 기업은 자발적으로 사회적 우려를 운영에 통합함으로써 CSR을 국제개발 협력 참여를 위한 논리적인 통로로 자리매김했다(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2001).

이와 유사하게, ESG 기준은 기업이 지속 가능성 원칙을 준수하는지 평가하는 중요한 도구로 등장했다. ESG는 환경 관리,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의 건전성을 우선시하는

장기 투자 접근 방식을 강조한다(Lee et al. 2021). 성공적인 CSR 이니셔티브는 종종 ESG 평가를 향상시키는데, 이는 지속 가능성이라는 더 넓은 개념 및 SDGs와의 연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Choi et al. 2021).

Hart et al.(2023)은 ESG 표준을 기업 의사 결정에 통합하는 것이 윤리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수익성 있는 관행을 이끌 수 있다고 주장한다. 기업의 적응력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글로벌 과제에 대한 ESG 기준은 중요성을 얻었으며, 기업이 환경 및 사회적 변화와 관련된 위험을 완화하고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Eccles et al. 2014).

이러한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국제개발협력에서 민간 부문의 참여가 확대되었다. 기업들은 빈곤, 불평등, 기후 변화와 같은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안정적이고 수익성 있는 운영 환경에 기여한다는 것을 점점 더 인식하고 있다. 유엔 글로벌 콤팩트(2020)와 세계 경제 포럼(2019)의 보고서는 혁신, 시장 접근 및 인력 개발을 포함하여 개발 협력에 기업이 참여함으로써 얻는 상호 이익을 강조한다. 민간 기업들의 ODA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윤리적 의무와 수익 잠재력에 대한 이중적 인식을 반영한다.

학술 연구는 자원, 전문성, 혁신을 동원함으로써 SDGs 달성을 민간 부문의 결정적인 역할을 강조한다(Scherer et al. 2018). 기업은 지속 가능한 관행을 전략에 통합함으로써 경쟁 우위를 강화하고 글로벌 발전에 기여한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사회 문제의 일부에서 해결책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중요한 전환을 의미한다. 따라서 개발 협력의 PSE는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으며, 글로벌 개발 과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의미 있는 민간 부문의 참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 2. 한국의 민간 부문 참여 강화

한국의 PSE 전략(ODA Korea 2022)은 개발도상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민간 부문의 전문성과 혁신이 중요하다고 인식한다. 이는 개발도상국 지원을 위해 민간 자금을 활용하는 글로벌 강조점과 일치한다.

이 전략은 민간 기업과의 더 큰 협력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세 가지 주요 목표와 해당 과제를 설명한다.

첫 번째 목표는 최적화된 금융 지원 패키지 설계,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민간 참여 촉진, 금융 자원 확대를 통한 인프라 이니셔티브 발굴 및 기획 촉진을 포함하여 민간 투자 및 금융 지원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다.

두 번째 목표는 KOICA의 선진 기업 협력 프로그램과 같은 이니셔티브,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 대외경제협력기금 도구 활용을 통해 민간 기업 참여 확대를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이 전략은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간의 소통을 개선하기 위한 협의 채널을 구축하고자 한다.

실제 관행 측면에서, KOICA는 지난 10년간 매년 수행된 CTS 및 프로젝트의 평균 건수가 각각 13건과 12건이었다고 보고한다(KOICA 2024). 이 수치는 변동이 있지만,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CTS는 스타트업과 소셜 벤처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기술을 적용하여 복잡한 개발 과제를 해결하고 프로젝트 효과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반대로, IBS는 CSR, 공유 가치 창출, ESG 전략을 ODA 프로젝트와 연결하여 지속 가능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발전을 추진한다. 주목할 만한 IBS 프로젝트에는 유한킴벌리, LG전자, 기아자동차와 같은 대기업 및 중견 기업과의 협력이 포함된다. 한편, 요크(Yoke) 및 에누마 코리아(Enuma Korea)와 같은 중소기업은 주로 CTS 이니셔티브를 주도한다. CTS 프로젝트는 KOICA의 직접적인 지원을 받는 반면, IBS 프로젝트는 기업 자금과 공동으로 자금을 조달하며, 둘 다 개발도상국에서의 PSE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한국 ODA 프레임워크 내의 PSE는 추가적인 발전이 필요하다(Yi et al. 2023). 부산 회의 이후의 이니셔티브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파트너십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민간 부문 참여를 촉진하는 정책을 옹호했다(Oh 2012).

Kim et al.(2020)은 PSE와 개발 조직 간의 협력 전략의 진화를 강조하며, 이러한 파트너십을 지원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의 지속적인 필요성을 역설했다. Lee et al.(2023)이 실시한 인터뷰는 민간 기업이 ODA에 참여하는 주요 동기가 주로 상업적 임을 밝혔다. 또한, Kim et al.(2022)은 국제 사례에 초점을 맞추고 한국에 대한 실질

적인 정책 권고를 제공하면서 개발 협력에 대한 민간 부문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 도구를 분석했다.

그러나 한국의 PSE를 구체적으로 다루는 이론적, 경험적 연구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Kim et al.(2022)이 정책 수단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을 제공하지만, 그들의 초점은 정책 수준에 머물러 있어, 민간 기업의 실질적인 기대와 경험에 대한 통찰력이 부족하다.

민간 기업. 이러한 격차는 한국 민간 기업의 실제 경험을 포착함으로써 경험적 공백을 채우는 것을 목표로 하는 본 연구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따라서 한국 상황에 맞춘 PSE 전략을 발전시키기 위한 독특하고 필요한 관점을 제공한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민간 부문 행위자들 자신의 목소리와 관점에서 국제개발 협력에서 민간 부문의 성과를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다루기 위해서는, 이러한 역할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가 필수적이다.

Kumar et al.(2013)은 역할 기대, 역할 인식, 역할 수행이 상호 연결되어 있으며, 이러한 요소들 간의 명확성과 일치가 효과적인 성과에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역할 수행은 단순히 수용 또는 준수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 기대와 내부 해석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되는 역동적인 과정이다.

Biddle(1979)에 따르면, 역할은 사회적 기대와 요구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관찰 가능한 행동으로 구성되며, 그 실현은 특정 맥락 내에서 이러한 기대가 어떻게 인식되고 실행되는지에 달려 있다. 따라서 요구되는 역할과 기대되는 역할 사이의 모호성을 이해하고 좁히는 것은 의미 있는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데 중요하다. 이러한 일치는 PSE의 정당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 행위자들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개발 협력 프레임워크를 만들 것이다.

### III. 연구 방법론

본 연구는 한국의 개발 협력 이니셔티브 내에서 PSE와 관련하여 민간 부문 행위자들에게 부여된 역할과 그들이 기대하는 역할을 조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OECD(2016)는 PSE를 “공여국 공공 부문이 개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민간 부문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정의한다.

본 연구에서 ‘민간 부문’이라는 용어는 금융 기관, 증개 기관, 중소기업(SMEs), 개인 기업가, 협동조합 및 대기업을 포함하는 영리 지향 조직을 구체적으로 지칭한다(Di Bella et al. 2013). 비정부기구 및 시민 사회 단체는 이 정의에서 제외된다.

### 1. 자료 수집

주요 자료는 선정된 한국 민간 기업의 핵심 이해관계자들과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수집되었다. 한국의 PSE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개발 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의 전체 풀이 제한적이며, 이는 본 연구를 위한 작지만 집중된 질적 표본 사용을 정당화한다.

따라서 표본은 적극적인 CSR 및 ESG 노력으로 인정받는 한국의 5대 대기업뿐만 아니라 CTS 프로그램을 통해 개발 협력에 직접 참여하는 중소기업을 포함하도록 의도적으로 설계되었으며, 제한된 표본 크기에도 불구하고 참가자들이 실질적인 PSE 경험을 갖도록 보장했다.

또한, 참가자들은 대기업의 CSR/ESG 전략을 담당하는 연구 직원 또는 팀장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개발 협력 프로젝트를 직접 담당하는 고위 임원 및 관리자를 포함하도록 선정되어, 개발 협력에 참여했음을 입증한 기업들로부터 다양한 관점을 확보했다.

표본 크기가 일반화를 제한하지만, 심층 인터뷰 데이터의 깊이와 맥락적 풍부함은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한국 ODA 프레임워크에서 민간 기업의 진화하는 역할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1~2시간 동안 진행된 인터뷰는 ODA 협력에 대한 기업의 경험, 역할 및 기대, 동기, 협력 유형, 메커니즘, 정책 및 제도적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인터뷰 질문은 <표 2>에 나와 있다. 나아가, 제한된 표본 크기를 보완하고 연구 결과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KOSME) 대표자들과 보충적인 서면 인터뷰를 실시했다. 이 서면 인터뷰는 민간 기업의 현재 ODA 프로젝트 참여 현황, 직면하는 한계, 참여 증대를 위한 권고 사항을 조사했다. 추가적으로, 이전 연구, 국내 이행 전략, 해외 PSE 사례 연구에서 2차 자료를 수집했다. 인터뷰, 보충 자료, 2차 자료를 결합한 이 삼각 검증법은 제한된 표본 크기에도 불구하고 경험적 기반을 강화하고 한국 PSE 환경에 대한 보다 미묘한 이해를 뒷받침한다.

## 2. 분석 프레임워크

문헌 검토에서 언급했듯이, 국제개발협력에서 PSE의 의미에 매우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개발협력에서 이전 민간 부문의 역할은 수혜자, 실행자, 개혁자, 자원 제공자, 참여자 또는 대상자로 분류된다 (OECD 2016; Vaes et al. 2015). 그러나 이러한 범주들이 그럴듯한 출발점을 제공하지만, 이전 프레임워크들은 종종 개념적 모호성을 보이며 기업의 다양한 동기와 실제 참여 전략을 완전히 포착하지 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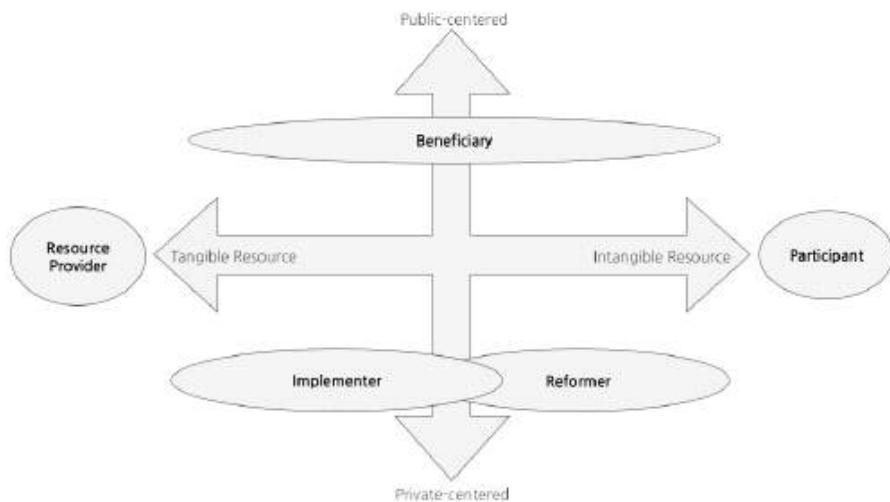
분석을 심화하기 위해, 본 연구는 민간 부문 역할 및 참여 범주화에 관한 문헌(Choi et al. 2021; DCED 2019; Lee 2019; Kim et al. 2020; USAID 2018)의 통찰력을 활용했다. 이러한 연구들은 기업의 참여 동기가 영리 지향적 인센티브에서 사회 공헌 또는 혼합 동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지식 및 정보 공유, 기술 지원, 재정 기여, 정책 참여와 같은 참여 방법이 민간 부문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로 나타났다.

이러한 통찰력을 바탕으로, 연구팀은 참여 목적, 협력 리더십 (공공 대 민간 부문), 자원 유형 (유형 대 무형)을 포함한 주요 참여 요소를 식별하기 위해 내부 매핑 연습을 수행하여 보다 포괄적인 분석 프레임워크를 개발했다. 이 정제된 프레임워크는 기존 범주화의 한계를 해결하고 두 가지 결정적 차원을 통합하여 PSE의 역동적인 특성을 포착한다.

- i. 협력의 주체: 공공 또는 민간 부문이 협력 이니셔티브를 주도하는 정도
- ii. 협력의 객체: 유형 자원 (예: 재정 자본 및 기술)에서 무형 자원 (예: 정책 및 지식)에 이르기까지 교환되는 자원의 성격

이 역할 기반 분석 프레임워크에서, 역할은 협력 역학이 네 가지 사분면으로 분류되는 2차원 구조 내에 매핑되며, 이는 다음 간의 상호작용을 강조한다.

협력의 주체와 객체. 이러한 역할의 매핑은 Vaes et al.(2015) 및 OECD(2016)에 언급된 각 역할의 정의를 활용하여 철저한 내부 숙고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이는 <그림 1>에 설명되어 있다.



Source: Authors

<그림 1> 국제개발협력에서 민간 부문의 역할

첫째, 자원 제공자와 참여자는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이 서로의 역할을 수행하는 상황에서 협력의 대상이 되는 자원에 차이가 있다. 자원 제공자의 경우, 공공 부문이 이니셔티브를 주도하는 반면 민간 부문은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므로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모두 필수적이다. 또한, 공공 및 민간 부문 협력의 주된 이유는 협력의 기반이 되는 유형 자원의 가용성이다. 반면, 참여자의 경우, 역학 관계는 관련 의제나 이니셔티브를 만들기 위해 협력하기 때문에 민간 부문과 공공 부문이 동등하게 간주된다. 그러나 이 경우, 회의가 정책, 담론, 대화와 같은 무형 자산을 교환하기 위해 개최되므로 협력의 객체는 무형 자원이 된다.

수혜자와 실행자, 또는 개혁자는 역할 간의 역학 관계에 따라 누가 더 중심이 되는지에 차이가 있다. 수혜자가 되는 경우, 민간 부문이 공공 주도 ODA 프로젝트로부터 이익을 얻기 때문에 대체로 공공 중심적이다. 그러나 실행자나 개혁자는 민간 부문이 ODA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회사 내에서 새로운 모델을 구현하거나 회사의 방향을 개혁하기 때문에 민간 중심적인 방식으로 비즈니스가 수행되는 방향과 종종 가깝다. 실행자와 개혁자 사이의 구분이 명확하게 구별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본 연구는 이 두 역할을 프레임워크로 사용하기 위해 명확히 한다. 개혁자의 측면에서, 민간 기업은 ODA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회사의 철학이나 방향에 변화를 가져오며, 협력의 목적이 무형 자원과 밀접하게 일치하도록 만든다. 반면에 실행자는 실현 가능한 새로운 모델을 구현하기 위해 ODA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이는 회사에게 기술 또는 제품을 의미한다. 따라서 ODA 협력의 목적은 유형 자원에 가깝게 분류된다.

이 연구는 이러한 역할을 구분하고 민간 기업에 할당된 역할(요청된 역할)과 이들 기업이 원하는 역할(예상되는 역할)을 검토함으로써 개발 협력에서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행위자 간의 다양한 역학 관계를 강조한다. 이 방법론은 한국의 PSE 전략에서 잘 못된 정렬과 기회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보장한다. 이해관계자 인터뷰의 질적 인사이트와 견고한 분석 프레임워크를 모두 활용하여 민간 부문의 ODA 프로젝트 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실행 가능한 권고 사항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IV. 연구 결과

연구 결과는 PSE 맥락 내에서 공공-민간 파트너십의 역할 요구와 역할 기대 사이의 현저한 불일치로 인해 역할 전환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불일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비교할 때 특히 두드러진다.

##### 1. 대기업

대기업은 전통적으로 주로 ‘자원 제공자’로서 개발 협력에 참여해 왔지만, 현재는 ‘개혁자’ 또는 ‘참여자’ 역할로의 전환을 옹호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대기업은 PSE에서 자금 지원 소스로서 명시적으로 요청받아 왔다. 예를 들어, B사는 “자금 조달은 민간 기업과의 협력에서 가장 큰 부분이었다. 대규모 민간 기업은 이미 매년 수백억 원을 사회 공헌 및 관련 프로젝트에 지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민간 부문은 이러한 역할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해 왔다. 기업들은 PSE 이니셔티브가 불분명한 결과를 낳는 일회성 노력이라고 비판하며, 이는 장기적인 영향과 관련성에 대한 의구심으로 이어진다. A사는 “한국에서 PSE는 현재 성숙기에 있지만, 기업들이 단순한 기부나 자선 프로젝트보다는 영향과 성과에 더 집중하면서 그들의 접근 방식이 더 보수적으로 변했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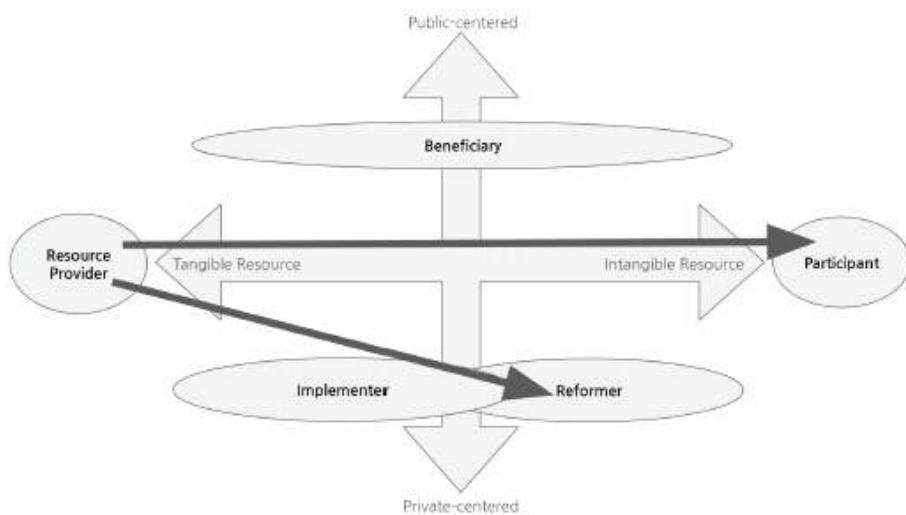
대기업은 또한 정부 및 국제기구와의 기대 불일치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그들은 전략적, 성과 지향적 협력에 대한 민간 부문의 진화하는 초점과 전통적인 재정 지원에 대한 전통적인 기대 사이에 격차가 있다고 인식한다. A사는 “현재 기업들은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선 지원 방식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국제기구와 정부는 목표 달성을 기업의 역할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불일치는 협력을 방해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민간 부문은 기술 전문성과 같은 고유한 강점을

활용하여 개발 이니셔티브에 의미 있게 기여함으로써 PSE에서 자신의 역할을 재정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들은 <그림 2>에 묘사된 바와 같이 자원 제공자에서 개혁자 또는 참여자로의 역할 전환을 요청했다. 그들은 참여자로서의 상호 협력과 대화를 기반으로, 개혁자로서의 역할이 회사의 방향 변화와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하기를 기대한다.

민간 기업은 SDGs와 같은 국제적 비전을 공유하며 ESG 경영 및 CSR 활동을 통해 더 나은 사회에 기여해 왔다. 기업 협력 방식은 물품 및 재정 기부나 기여에서 사회에 대한 지속 가능한 기여에 초점을 맞춘 성과 지향적이고 영향 지향적인 접근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 특히, 대기업의 외부 협력 측면에서의 PSE는 그들의 기업 이미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B사는 “외부 협력 프로젝트의 명분(cause)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A사는 “기업들은 글로벌 정당성과 대중의 신뢰를 위해 협력하며,” PSE가 “사회 문제 해결에 가시적인 결과가 있고 이것이 기업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도록 한다”고 말했다.

그들은 중요한 것은 “그것이 도움이 되는지 여부”라고 설명했다. 또한, CSR과 ESG를 따르는 것은 그 자체로 SDGs에 관한 것이거나 개발 협력을 회사의 핵심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마케팅과 연결하거나 비즈니스를 글로벌화하는 것과 같이 회사의 전반적인 비전과 브랜딩을 개선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기업은 PSE를 브랜드 이미지를 바꾸기 위한 전략으로 활용하고자 하며, 보다 신중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성과 지향적인 접근 방식을 추구한다.



Source: Authors

<그림 2> 국제개발협력에서 대기업에 제안된 역할 전환 시각화

<A사 인터뷰> 국내에도 지원이 있는데 왜 해외에 지원을 하는지에 대한 대중적인 시각이 있으며, 다양한 지정학적 문제로 인해 국제 비즈니스에 집중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사실 기업들은 자신들이 잘 해온 것으로 사회에 기여하기를 원한다. 회사는 현재 이전의 자원 제공자 방식 이상의 새로운 협력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과거에는 사회 공헌이 김치를 담그고 연탄을 배달하는 것이었지만, 이제는 다르다. 예를 들어, 우리는 스마트폰과 노트북에 강점이 있으므로, 교육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이를 개발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

<B사 인터뷰> 기업들이 KOICA와 사업을 하는 이유를 물어야 한다. 대기업들이 KOICA와 같은 기관과 협력하는 것은 KOICA로부터 예산의 30%나 50%를 받기 때문이 아니다. 외부 협력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있어 정당성(Justification)이 중요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ODA 프로젝트에서, 민간 기업과의 협력은 기획 단계부터 민간 부문의 필요나 이익을 반영하기 위한 공동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방식이 아니었다. 대신, 일시적인 요구 또는 요청에 대응하는 단기적인 협력을 수반한다. 이러한 유형의 협력에서, 민간 기업은 공동 협력자가 아니라 ODA 프로젝트의 지원자 및 조달자로서 행동할 수밖에 없다.

<A사 인터뷰> 현재의 협력 방식은 일시적인 조치로서 또는 갑작스러운 요청이 있을 때 접촉하는 방식이며 우리의 대표적인 사회 공헌 활동은 지역 NGO와 협력하여 좋은 지역 사회 활동과 실행 능력을 갖춘 프레임워크에 따라 수행되어 왔다.

그러한 의미에서, 참여자(participant)의 역할이 중요하다. 대기업은 유형 자원보다는 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기술, 지식, 노하우와 같은 무형 자원 측면에서 파트너십을 선호한다. 회사는 자신의 강점을 가지고 사회에 기여하기를 열망한다. 또한, 그들은 파트너십의 효과와 결과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

## 2. 중소기업

중소기업의 경우, 연구 결과는 수혜자 및 실행자로서 PSE에서 그들의 역할이 이론적으로 적절하지만, 수많은 제약이 그들의 효과적인 참여를 방해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에서 정부는 제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21-2025)에 명시된 바와 같이 ODA 참여를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CTS는 중소기업이 ODA로부터

부분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며, 새로운 비즈니스와 시장을 위한 채널을 제공하고, 또한 프로젝트 수주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역할 요구는 중소기업의 역할 기대와 일치한다.

그러나 실제 문제는 이러한 역할을 철저히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상당한 외부 제약이 있다는 것이다. 수혜자의 역할과 관련하여, 민간 기업들은 특히 ODA를 통해 새로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채널을 확보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의 경우, 현지 비즈니스 확대를 넘어 ODA 프로젝트에서 제품을 활용하여 이익을 창출하는 측면에서 수혜자 역할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명확하게 표명된다. 이와 관련하여 KOSME는 “ODA 참여는 글로벌 시장을 위한 좋은 기회라고 믿으며” PSE가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는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PSE 방식은 수혜자로서의 민간 부문 역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이를 지원할 기반이 부족하다. 중소기업이 수혜자 역할에 대한 더 큰 요구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중소기업이 PSE로부터 혜택을 받는 것은 시스템적으로 복잡하다. C사는 “조건이 많아 현지 비즈니스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한다. 또한, D사는 “혁신 기술에 적합한 사업을 설계하고 공동으로 기획할 방법이 없다”고 말한다.

더 자세히 살펴보면, 처음부터 입찰 절차에 부과된 조건은 국내 중소기업에 불리하다. ODA 프로젝트는 구조적으로 한국 기업이 아닌 협력 대상국의 현지 기업 참여를 장려한다. 국내 기업이 개발도상국에 진출하거나 국제기구와 사업을 하는 데 많은 제약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ODA 조달 시스템도 국내 기업에 친화적이지 않다. 더욱이, 시스템 제약 외에도, 국내 기업에 대한 낮은 인지도가 주요 방해 요소이다. 국내 중소기업이 그들의 제품과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PSE를 통해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더 어렵다. 또한, 현지화되고 혁신적인 기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때 가격 경쟁력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가격을 무기한 낮출 수 없기 때문에 상황은 더 어렵다.

<D사 인터뷰> 한국에서 참신한 솔루션을 도입한 대부분의 기업은 유럽 기업에 비해 역사가 짧다. 국제기구가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한국 기업을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협력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렵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것이 정부가 정책적으로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믿는다.

중소기업이 수행하고자 하는 또 다른 역할은 ODA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실행하는 실행자의 역할이다. 중소기업은 ODA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이 실행자 역할도 까다롭다. ODA를 통해 민간 기업은 기술 지원 또는 제품 제공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를 실행할 수 있다. 독창적인 기술이나 제품을 가진 기업은 현지 적용을 통한 시장 확대 또는 연구 개발 측면에서 PSE에 중요성을 부여한다. 따라서 기업이 개발도상국 시장에 진출할 때 첫 번째 단계는 현지화, 즉 비즈니스 준비이다. 준비가 되면 다음 단계인 확산으로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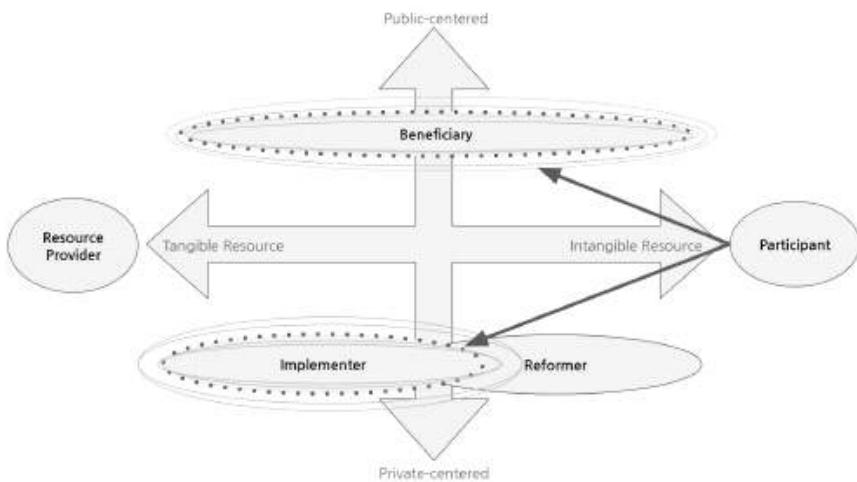
그러나 PSE는 기술 준비 또는 현지화에 투자하기보다는 확산에 중점을 둔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간 기업의 PSE를 통해 접근된 기술의 현지 적용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장기적인 접근 방식에서 민간 부문 내 ODA의 다른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에 대한 명확한 기대가 있다. 그러나 파편화된 필요에 맞춘 임시 제품 또는 기술 제공에 주로 기반한 현재의 파트너십 생태계에서는 기업의 증가하는 요구가 충족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중소기업에게는 이종 장애물이 존재한다. 그들은 혁신적인 기술과 제품을 회사의 경쟁 우위로 보지만, 때로는 이러한 혁신성이 장애물이 되기도 한다. 유사한 기술을 활용하는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조달 구조의 문제로 인해 공급 경쟁에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중소기업은 2~3년간 조달을 준비한 후에도 개발도상국 시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한국에는 중소기업과 소셜 벤처를 지원하는 KOICA CTS가 있다. 그러나 이는 확산보다는 발굴에 중점을 두며, 기업이 이를 통해 레퍼런스(참조 사례)를 구축하는 것은 실제로 어렵다.

<D사 인터뷰> 기본적으로 입찰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여기에 조건이 붙는다. 가장 큰 조건은 현지 제한이다. 공공 입찰을 진행할 때 현지 기업을 장려하는 조건이 붙으며, 우리는 협력이 어렵다고 느낀다. ~ 혁신적이라는 것은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제품을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시장에 다른 경쟁자가 없다. 중소기업과 소셜 벤처가 경쟁 입찰에서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PSE를 통해 시장을 확보할 수 없을 때 자리를 잡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러한 제약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은 또한 민간 부문이 소통할 기회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들은 PSE에서 민간 부문의 참여자 역할에 대한 기대가 없다고 설명한다. C사는 “상호 논의를 위한 장이 부족하다”고 설명하며, D사는 현재 PSE가 “파트너십이라기보다는 주로 하향식(top-down) 관리 유형”이라고 설명한다. 즉, 참여자

역할을 부여하지 않으면 PSE는 협력적 과제가 될 수 없다. 중소기업은 참여자의 참여를 통해 기술, 혁신적인 아이디어, 유형의 항목과 같은 다양한 자원에 중점을 둔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Source: Authors

<그림 3> 국제개발협력에서 중소기업의 역할 기대 시각화

연구 결과는 <그림 3>에 나타나 있으며, 이는 수혜자 및 실행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 그들의 열망과 과제, 그리고 참여자로서의 역할이 왜 중요한지를 강조한다. 이 그림은 중소기업이 요구되고 기대되는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잘 수행하고 있지 못함을 묘사한다. 이는 주로 현지 파트너십 확보의 어려움과 복잡한 협력 역학 관계를 헤쳐나가는 것을 포함한 구조적 문제 때문이다. <그림 3>은 나아가 참여자 역할이 중소기업을 위한 핵심 전략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수혜자 및 실행자로서의 역할을 보다 효과적으로 협상하고, 상호 협상 및 협력을 통해 역할 수행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또한 정부가 국제개발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을 육성하고자 한다면, 역할 요구를 하기 위해 개별 중소기업의 역할 기대와 가능한 역할 수행을 조사하기 위한 더 상세한 진단을 수행해야 함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대기업이 자신의 역할을 재정의하고자 하는 반면, 중소기업은 자신들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더 나은 지원을 원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구체적으로, 대기업은 자원 제공자보다는 실행자 또는 개혁자 역할을 선호한다. 이러한 역할은 민간 기업에게 국제 개발에서 더 큰 주인의식을 시사한다.

추가적으로, 대기업은 단순한 물품 자원보다는 더 광범위한 수준에서 기술 및 지적 자원의 공유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반면, 중소기업은 제품 및 서비스와 같은 물품 자원의 판매에서 성장이 비롯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중소기업이 아이디어와 기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들은 또한 더 광범위한 자원이 협력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인 PSE를 위해 공공 부문 이해관계자들이 요구하는 역할과 기대되는 역할 사이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두 유형의 기업 모두에게 역할 전환이 있어야 한다.

## V. 논의

본 연구 결과에서 관찰된 역할 전환은 기업들이 스스로를 이니셔티브의 주도자로 정의하고자 함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하여 OECD(2016)는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참여 메커니즘을 광범위한 개발 협력 우선순위와 일치시키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민간 기업과의 파트너십에서 협력 생태계는

효과성과 성과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적응해야 한다. 이러한 조정은 민간 기업이 전통적인 자원 제공자 역할을 넘어 실행자 및 개혁자로서 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더 원활하고 지속적인 협력을 촉진할 것이다.

이 결과는 한국 PSE의 전제 조건과 관련하여 핵심적인 모순을 제시한다. 처음에는 PSE가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았고 기업들이 개발 협력의 주요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다고 가정되었으나, 연구 결과는 그 반대를 나타낸다. 즉, 기업들은 이미 능동적인 역할을 기대하고 있지만, 이 역할이 다른 이해관계자들에 의해 그들에게 기대되지 않았다. 기업들의 준비에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 능동적인 역할이 기업들에게 부여되지 않았는가?

고려해야 할 한 가지 요인은 ODA 프로젝트의 공공적 성격이다. 개발 협력의 주요 이해관계자는 개별 국가이며, ODA 프로젝트는 공공 부문에서 수행된다. 그러나 민간 기업은 이윤 추구 단체이다(Barnard et al. 2022). 비록 민간 기업의 참여가 마케팅 및 제품 판매와 같은 사업적 이해관계와 종종 연결되어 있지만, 본 연구는 중요한 오해

를 밝혀낸다. 즉, 기업들이 자원 제공자와 같은 제한된 역할에 만족하는 것으로 인식 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 ODA 프레임워크 내에서 CSR 및 ESG 원칙이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논의를 통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제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 계획(2021-2025)은 민간 부문 참여 강화의 필요성을 명시적으로 강조하고 CSR과 ODA 참여의 통합을 강조한다(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2021). 특히, 이러한 원칙의 발현은 주로 대기업에 요구되며, 여기서 민간 부문의 기대는 여전히 주로 재정 자원 확보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기업들은 순전히 공공의 목적으로 국제개발협력에 기여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인터뷰에서 드러났듯이, ESG와 CSR은 투자 유치와 같은 이윤 추구 활동과 완전히 분리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 부문 이니셔티브를 통해 민간 이익을 지원하는 것은 국제개발협력 및 ODA의 목적에 대한 윤리적 우려를 제기한다. 따라서 PSE의 가장 큰 과제는 이러한 역학 관계와 모순을 조정하는 데 있다.

본질적으로 복잡하지만, 연구 결과는 한 가지 실질적인 해결책을 재확인한다. 즉, 민간 부문은 더 적극적인 참여자 역할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여자 역할을 확대하는 것은 상호 논의를 위한 공간을 만들고, 사업 확대를 촉진하며, 공공 부문과의 더 원활한 파트너십을 육성할 수 있다. 전통적이고 파편화된 협력 모델은 민간 기업에게 덜 매력적으로 변했다. 기업을 효과적으로 참여시키기 위해 개발 우선순위의 공개적이고 포괄적인 계획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Reid et al. 2014). 지속적인 대화, 투명성, 그리고 사업 이익과 개발 목표의 일치는 개발 협력 프로젝트의 장기적인 성공에 필수적이다.

다음으로, 반면에 중소기업의 경우 개발 협력에서 개혁자 또는 참여자 역할을 맡는 것에 대한 명시적인 기대는 거의 없다. 이는 한국 ODA 프레임워크 내에 두 가지 뚜렷한 형태의 기대와 접근 방식이 공존함을 보여준다. 하나는 CSR, ESG 통합 및 기술 혁신을 강조하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다른 하나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시장 진출 기회에 초점을 맞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제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2021-2025(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2021)에서 정부는 중소기업의 참여를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내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더 광범위한 국가 의제와 암묵적으로 연결한다.

그러나 진정한 과제는 기업 규모나 역량에 관계없이 파트너십에 획일적인 접근 방식

을 적용하는 경향이 있는 한국 ODA 프레임워크의 단일 구조에 있다. 이러한 획일성은 다양한 민간 부문 행위자, 특히 중소기업의 고유한 역학 관계와 필요를 수용하지 못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중소기업이 기대되는 역할과 이론적으로 일치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ODA 시스템 내의 구조적 및 절차적 장벽이 그들의 완전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방해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여 절차 간소화, 정보 접근성 향상, 재정 지원 확대, 그리고 더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PSE를 육성하기 위한 투명하고 성과 지향적인 평가 메커니즘 구축을 포함한 시스템적 개혁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이 연구는 질문을 제기한다. 한국의 접근 방식이 진정으로 PSE를 실천하고 있는가?

국제개발협력에서 민간 부문의 역할은 세 가지 뚜렷한 추세로 발전해 왔다: 민간 부문 개발(Private Sector Development), 개발 내 민간 부문(Private Sector in Development), 개발을 통한 PSE(PSE through Development).

PSE는 마지막 흐름에서 강조되며, 단순한 상업 활동을 넘어 민간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에 초점을 맞추어 국제개발협력의 핵심 목표에 기여한다.

그러나 연구 결과는 한국의 접근 방식이 주로 '개발 내 민간 부문(Private Sector in Development)' 추세와 일치함을 시사한다. Watson(2013)과 Stallings et al.(2016)은 한국의 개발 협력 모델이 민간 기업을 포함한 비정부 행위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방해하는 제도적 및 규범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Yi et al.(2023)은 한국의 전통적인 정부 주도 개발 협력 거버넌스가 복잡한 행정 절차와 느린 의사 결정을 초래하여 민간 기업의 완전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제한한다고 강조한다. 더욱이, 민간 기업 참여를 위한 ODA의 제한된 할당은 이러한 제약을 악화시킨다(Choi et al. 2021; Stallings et al. 2016; Watson 2013; Yi et al. 2023 참조). 본 연구에서 드러난 강력한 전략은 참여자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다.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간의 관계를 진정한 파트너십으로 전환하려면 정부가 주요 행위자이자 지원자로서 행동해야 한다. 이는 정기적인 정보 교환을 위한 플랫폼을 제공하고 민간 부문이 국제 개발의 공동 파트너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민간 기업의 역할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실행자 및 개혁자로서의 참여를 촉진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포괄적인 PSE 프레임워크를 육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VI. 결론

본 연구는 민간 부문이 이미 국제 개발 협력에서 실행자, 개혁자,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자로서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대기업은 기술 전문성과 글로벌 입지를 활용하여 기여를 더 광범위한 사업 목표와 일치시키기를 열망한다. 한편, 중소기업은 더 광범위한 사업 성장과 운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제한적인 조달 정책 및 제한된 시장 접근을 포함한 시스템적 장벽을 극복하고자 한다.

그들의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민간 기업은 이러한 역할을 완전히 실현하는 데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는다. 대기업은 종종 순전히 재정적 기여자라는 선입견과 씨름하는 반면, 중소기업은 참여를 방해하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한다. 이러한 장애물은 역할 기반 계획을 통합하고 민간 부문의 기여를 개발 이니셔티브의 필요와 일치시키는 보다 포괄적인 프레임워크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공개적인 소통, 정책 개혁, 그리고 지속적인 협력을 위한 플랫폼은 PSE를 상호 유익한 노력으로 전환하는 데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민간 기업의 역할을 명확히 정의하고 그들의 고유한 강점과 과제에 맞춘 접근 방식을 조정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대기업은 지속 가능한 관행을 통해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집중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은 목표 지향적인 지원 메커니즘을 통해 혁신과 현지 영향을 주도할 수 있다. 이러한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개발 프로젝트는 민간 부문 기여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며, 이는 향상된 성과와 수혜국에 대한 더 큰 영향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본 연구에는 한계가 있다. 표본 크기가 제한적이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모두 포함했지만, 부문 및 관점의 다양성은 여전히 제약적이다. 또한, 연구 결과는 질적 인터뷰를 기반으로 하며 더 광범위한 민간 부문 인구에 일반화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는 더 광범위한 민간 부문 참여자와 맥락을 포함하도록 분석 범위를 확대하여, PSE 내에서의 관점과 기회의 다양성을 포착해야 한다. 다양한 지역과 산업의 사례 연구를 통합하는 것은 더 깊은 통찰력과 실행 가능한 권고 사항을 제공하여 국제 개발 협력에 대한 보다 효과적이고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육성할 것이다. 향상된 협력과 공동 책임 분담을 통해 민간 기업은 의미 있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추진하는 데 필수적인 파트너가 될 수 있다.